

#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한 회계실무교육제도에 관한 제언 - 회계실무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중심으로 -

이계원<sup>1\*</sup>, 한경희<sup>2</sup>

<sup>1</sup>조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sup>2</sup>조선대학교 경영학부 강사

## A Suggestion of Accounting Practical Education System for Enhancement of National Credibility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ccounting Practice Education Institute-

Kye-Won Lee<sup>1\*</sup>, Kyoung-Hee Han<sup>2</sup>

<sup>1</sup>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sup>2</sup>Lecture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Chosu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 결여로 인해 세계 최하위수준인 국가신인도 제고를 위한 회계실무교육제도 관련 정책제언에 그 목적이 있다. 국가신인도가 최하위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감사인의 자유선임제도이고, 다음으로 회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각종 공청회, 보도자료, 정부의 정책자료 등을 정리한 서지학적 연구라 할 수 있다.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길은 자유선임이라는 현행 감사제도의 개선과 회계실무교육을 제대로 담보해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감사제도는 2020년부터 주기적(6+3) 지정감사제도로 입법화되었기에, 문제는 회계실무교육으로 그 대상자가 민, 관 등 모든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회계전문교육기관인 (가칭)'회계연수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생산·이용하는 자들의 전문적인 실무교육훈련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 회계연수원, 국가신인도, 회계투명성, 감사인 지정제도, 발생기준 정부회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olicy for accounting practice education system to improve the national credibility. The biggest reason why the national credibility is the lowest is that the auditor's free appointment system is the next, and the education on accounting is not done properly. This study is a bibliographical study that examines the previous studies on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audit and accounting education in Korea, various public hearings, press releases, and government policy data, and summarizes. The way to increase accounting transparency is to improve the audit system and to guarantee accounting practice education. Since the subjects of practical education belong to all areas such as private and government, it is intended to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ccounting professional education institution, called (tentatively) 'Accounting Training Institute'.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practical and professional training will improv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credibility.

Key Words : Accounting Training Institute, National credibility, Accounting transparency, External auditor designation system, Accrual basis Government accounting

##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경제력 측면에서는 10위권에 위치하면서도, 2019년 스위스 국제경제개발원(IMD)와 세계경제포럼(WEF) 등 국제평가기구에서 이루어지는 회계투명성 및 외부감사의 적절성 순위는 최하위 수준인 61위/63개국이라는 매우 초라한 평가표를 받았다. 한국의 회계투명성이 최하위인 이유는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라는 기업 지배구조하에서의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이라는 불합리한 감사시스템과 경영자들의 잘못된 경영윤리에 근거한 연이은 대형 회계부정[1998년 대우그룹을 필두로 SK글로벌(2002), 저축은행과 STX 조선해양(2012), 동양그룹·효성·모뉴엘·대우건설(2013), 대우조선해양(2015)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회계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부득이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20년부터 적용하게 될 외부감사인 주기적(6+3)지정제도의 도입 등 효과적인 회계투명성 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법제화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명시적인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평가기구들의 회계신인도가 낮은 까닭은 제도와 시스템의 집행을 담보해내는 회계전문인력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즉, 회계처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IFRS의 ‘원칙중심’ 회계기준 하에서 기업들이 회계부서 역량을 강화하여 합리적 논리를 갖고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회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지닌 CEO들은 회계부서 인력을 최소화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의지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회계법인들의 감사 역량 탓으로만 낮은 회계 투명성 순위를 돌리려 하고 있다.

송인만 등(2010)은 회계기준의 이해와 관련하여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보 이용자집단 중 대출심사자 31.8%와 재무분석가 15%만이 회계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회계정보의 생산자 못지않게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전문가 집단에게도 회계기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의 기회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1].

또한, 우리나라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07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가, 2년 후인 2009년부터 국가회계법에 따라 중앙 정부도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시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목적은 예산회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업에서와 같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부채 등 종합적인 재정상황의 파악, 그리고 재무정보와 원가의 공시와 같은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행정기관의 장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도입 당시 지자체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회계실무담당자와 관리자 그리고 의회 의원 등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복식부기 회계의 중요성을 알렸고 그 결과 관심도 많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복식부기 회계에 대한 집합교육과정은 대부분 폐지되고 사이버 교육과정만 일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정규 집합교육과정 축소는 회계의 ‘공공성’을 도외시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은 회계정보의 생산자와 이용자(재무분석가와 신용평가사 등)들에 대해 제대로 된 회계실무교육을 담보해내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가칭)‘회계연수원’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회계의 역할과 공공성

### 2.1 회계의 역할

역사학자이자 회계학자인 제이콥 솔(Jacob Sol) 교수는 그의 저서 ‘회계는 어떻게 역사를 지배해 왔는가?’에서 회계투명성이 기업, 나아가서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2].

즉, “국가 경제가 잘 되려면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작동되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작동하려면 그 근간인 회계 정보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 결국,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고 기업의 올바른 경영 의사결정은 건강한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잘못된 회계정보는 기업은 물론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킨다. 대부분의 회계부정은 오랜 기간에 걸쳐 비밀리에 진행되어오다 막바지에 적발되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게 되며, 나아가 친문학적 국민들의 혈세가 공적자금으로 투입되는 경우 자본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여 국가적으로 엄청난 기회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 2.2 회계와 시장의 실패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일련의 가정들이 충족되지 않

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여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초래되므로 부득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회계 정보는 먼저, ‘공공재’(public goods)로서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무임승차자가 되려고 하기에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적게 공급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외부성’(externality)과 관련하여 분식회계를 하는 기업들은 직접적인 생산비용만을 고려할 뿐 국가 신뢰도 하락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적정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회계는 정보 생산자인 기업과 이를 이용하는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성’(불완전 정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원 배분에 있어서 왜곡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3].

결국, 회계정보는 ① ‘공공재’로서 ② ‘외부성’과 ③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시장의 실패 요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회계정보가 모든 사람들에게 추가비용 없이, 그리고 대칭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시장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 2.3 감사업무의 공공성과 지정 감사제 도입

공인회계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영역인 회계감사의 최우선 가치는 공인회계사법 제1조(목적)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따라서 외부감사업무는 사적 서비스보다는 국가와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공공재’로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피감사기업이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사적 계약으로 지금까지 수행되어 오고 있다. 즉, 1983년부터 100% 자유선임제가 시작되었고, 1999년부터 수입회사 수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자유선임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감사품질 향상’이라는 감사인 간 경쟁 촉진에만 목적을 둔 자유선임계약과 우리나라의 오너(지배주주) 경영이라는 기업지배구조 특성으로 인해 독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감사 결과를 담보해내지 못하는 시장 실패에 대한 증거들의 속출로 인해 정부의 개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외감법 개정(2017년 11월)에 따라 2020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자유선임 6년+지정감사 3년)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즉, 주권 상장법인(코넥스 제외)과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 대표이사의 지분이 50% 이상인 회사는 2020년 이전까지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기업은 직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 2.4 공공재로서의 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

2010년부터 본격 도입된 정부와 지자체의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는 예산회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합리적인 자원배분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회계의 ‘공공성’에 기초한 것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상태 및 성과평가를 통한 지자체의 장 등의 선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 제도의 정착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3. 우리나라 회계의 현주소

### 3.1 우리나라의 대학 회계교육

우리나라가 2010년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함에 따라 회계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물론 기업에서 회계정보를 생산해내는 회계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들 회계전문인력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까지 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양과 질적 측면 모두에서 복잡다기한 글로벌 경제현상에 대한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회계전문인력들에게 필요한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제대로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대학에서 경제활동을 이해하고 영위하기 위한 재무이해력을 향상시키는데 교양 회계과목이 필요함에도 대부분의 대학에서 도외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4]. 더구나 회계교육은 2000년 초 교육부의 ‘학부제’ 시행에 부응하여 기존의 경영학과와 회계학과를 통폐합시켜 경영학부(과)로 모집단위를 변경하면서 교과과정을 전면 개편하여 회계학 교육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 후 일부 대학에서 회계학과를 다시 독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중 46개 대학(전체 299개 대학의 15.3%)만이 독립된 회계학과를 운영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비해, 미국의 경우 경영대학을 운영하는 139개 대학 중 83%가 회계전공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약 15%는 회계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 비해 회계학과 설치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

한편, 학부제로 통합된 이후에는 각 전공별 교과목 개설의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회계학 전공과목은 제한적으로 개설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숫자를 다루는 과목(회계학, 재무관리 등)들은 일반적으로 수강을 기피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영학부생들이 회계학 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졸업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를 위한 기본 조건에 서도 회계·세무 관련 과목을 12학점만 취득하면 되기에 필요 이상으로 회계 관련 과목을 수강할 이유가 없는 데다가, 응시생들도 오로지 시험 합격에 목표를 두고 있어 대학의 정규 수업은 최소 과목으로 하고 오히려 학원 수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에 직무별 전공자를 뽑는 전공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학 전공교육의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물론 기업의 신입 회계담당자들이 복잡다기한 글로벌 기업의 회계실무를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회계처리를 하는데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더구나 공인회계사들에게 날로 복잡해져 가는 각종 회계 관련 규정과 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만들어낸 회계자료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종합적인 판단기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전근대적인 문제풀이로 단순히 정해진 합격자 수를 가려내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 3.2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

공인회계사는 이해관계자들을 대리하여 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파수꾼(watch-dog) 역할로서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기에, 충분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경험은 물론 철저한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한 도덕적인 무장이 전제되어야 한다. 통상,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길을 갈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일 뿐, 아직 전문가로서의 실무적인 능력까지 충분하게 갖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업윤리와 실무능력 배양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

공인회계사의 업무영역은 크게 ‘감사와 Tax 그리고 컨설팅’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은 과거의 사법연수원 연수과정처럼 전반적인 실무수습과정(pooling program)을 고루 거친 후, 본인이 어떤 분야를 더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특정 영역을 선택하고 자신의 전문 영역으로 특화해 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실무수습시스템은 이러한 pooling 프로그램은 물론, 각 영역별 사례연구와 실무수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영

역에 재능이 있는지 사전적인 검증 없이 회계법인의 특정 영역에 배정되어 업무 매뉴얼만을 습득한 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혹 회계법인에 이러한 pooling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회계법인들은 소위 ‘바쁜 시즌(busy season)’이라는 미명하에 실무 관련 사전 교육을 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부득이 현장에서 체험을 통해 회계실무를 습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기업의 회계담당자 입장에서는 IFRS의 ‘원칙 중심’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감사인과의 입장 차이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리스크가 매우 커진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상황 속에서 외부감사인과 기업의 회계담당자들에게 전문적인 실무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겠다.

### 3.3 기업들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2015년부터 외감법 개정으로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조항이 신설되어 본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본인이 감사하는 자기검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이를 위배시 엄중한 벌칙으로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신뢰성 제고에 따라 감사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외감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는 물론, 재무제표 제출기한이 아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Table 1. survey result for improvement plan of auditor designation regulation

division	Big 4 Firm (respondent 72)	Non-Big4 Firm (respondent 81)	total (mean)
request for non-remuneration service	47.2%	76.5%	62.7%
request for reduction of audit fee	62.5%	80.3%	71.9%
auditor replacement pressure	59.7%	60.5%	60.1%
audit evidence timely non-provided	93.1%	76.5%	84.3%
request for financial statement preparation	84.7%	82.7%	83.7%

\* data of public hearing. 2016. 12. 16.(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KICPA, KOSPI LA, KOSDAQ LA).

Table 1은 우리나라 감사시장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응답자의 평균 83.7%가 피감사 회사로부터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받았고, 84.3%가 감사 증거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Big 4 회계법인 소속집단에서 평균(83.7%)보다 더 높은 비율

(84.7%)로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받았으며, 93.1%(평균 84.3%)가 감사증거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는 바, 이는 폐감사기업과 감사인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해 감사인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하겠다[6].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2,068개 기업(코스피 763, 코스닥 1,305개) 가운데 98.2%(2017년의 경우 99.1%)인 2,031개 기업이 적정의견을 받았다. 이는 미국 66%, 일본 72%의 적정의견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주요국 중 회계 투명성이 꼴찌 수준인 나라에서 적정 감사의견 비율이 반대로 98~99%라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7].

한편,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의 근본 문제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본질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회계 담당자들이 회계실무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기업의 회계담당자들에게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회계실무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3.4 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의 문제점

한편, 정부와 지자체 등에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복식부기 도입의 당초 목적인 투명회계, 국가부채관리, 행정원가 절감 등을 전혀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복식부기 도입으로 국가재정에 관한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회계의 공공성에 부합되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8]. 이는 지자체 장들의 재무회계정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들 회계정보가 예산 배정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e-호조 복식부기 재무회계시스템’은 예산회계법상 집행 내역에 대해 총괄분류표(COA)상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복식부기 개념에 따라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재무회계 전담자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하지만, 결산 시즌에는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것처럼, 담당자의 판단결과에 따라 지자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산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회계담당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업무에 문외한인 담당자들이 순환보직으로 보임됨에 따라 제대로 된 재무

제표가 작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무제표의 검토를 담당하는 외부 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써 공인회계사는 결국 자신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스스로 검토하는 자기검증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 3.5 한국공인회계사회 내 회계연수원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라 한다)내 회계연수원은 회원(등록 공인회계사)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수습회계사, 그리고 회계사무소 직원 등의 연수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러한 회계연수원은 이익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 회원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체기구로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이 각 위탁기관(회계법인, 금융감독원 등)에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등록절차를 밟을 때 마지막으로 잠깐 거치는 곳이 ‘한공회’ 내의 회계연수원이다[9].

주인기 등(2006)은 2005년부터 회계연수원의 교육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체제로 전환된 후 교육의 충실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바, 사이버교육 실시에 대한 효과검증을 통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0].

더구나, 휴업 및 경력 단절 회계사의 현업 복귀 시 그동안 변화된 이론 교육은 물론, ‘원칙 중심’의 IFRS에 따른 실무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이 없이 곧바로 현업에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한공회 내의 회계연수원을 제대로 된 회계실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우수 교수진 확보 등 시스템을 갖추어 회계실무 전문교육기관으로 스스로 변신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3.6 한국회계기준원의 교육

한국회계기준원(KAI)은 기업 등의 예상수요에 맞추어 회계기준의 원활한 실무적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회계기준의 실무적용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을 기업, 감사인 등과 공유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11].

즉, 기업의 회계기준 실무적용 지원과 더불어 기업의 회계역량을 제고하고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개념체계 기반의 ‘원칙중심’교육으로 회계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한국의 회계투명성 개선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회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지금의 역할 이외에 회계실무와 관련된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4. 미래의 회계실무교육

### 4.1 미래 회계실무교육의 방향

미래의 회계교육은 선진국과 같이 대학에서 정상적인 회계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회계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제회계사연맹(IFAC)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급변하는 국제 회계환경에 적응하고 제대로 된 회계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조건을 갖춘 우수한 인력만이 공인회계사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즉, IFAC는 2004년 회계교육, 실무수습, 공인회계사시험 및 평가에 관한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전 세계 공인회계사의 교육에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요소를 규정한 7개의 국제교육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예로서, 회계투명성 순위 Top에 랭크된 홍콩, 싱가포르, 일본,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우수한 인력들을 대학의 회계전공자로 선발함은 물론, 대학(대학원)의 회계학위과정을 이수한 자만이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우수 교육제도 사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12].

다음으로, 회계교육의 내용 측면에서 각종 회계관련 자격시험에 회계윤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전문가로서의 직업의식교육,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IT와 회계정보시스템, 비영리회계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방식도 강의중심이 아닌 사례연구와 PBL, AI 등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실무중심의 수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13].

배기수 등(2017)은 회계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적과 특성, 그리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회계학전공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체계적인 회계학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교수법도 기존의 강의식이 아닌 문제중심학습(PBL)방식 등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실무중심의 통섭형 회계전문가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

전재표 등(2018)과 김경미 등(2017)도 자기주도학습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AR 또는 VR)과 같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교수법 개발,

몰입과 동기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임을 통한 회계 학습프로그램(Gamification)이나 역진행 학습(Flipped Learning)에 활용할 수 있는 회계학습도구를 개발하여 학습자를 지원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15,16].

### 4.2 복식부기 정부회계교육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회계정보를 예산제도와 연계시켜야 하고, 다음으로 회계정보시스템 수준의 향상, 그리고 정부 특수자산의 인식과 측정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무제표를 검토해야 할 외부 검토위원인 공인회계사에게 결산정리와 재무제표의 대리 작성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회계전문 실무교육을 받은 우수 공무원을 회계담당 전임자로 보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방회계통계센터가 행정안전부에 전문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 거의 모든 복식부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사이버 교육에 그치고 있어 회계분야의 교육으로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집합교육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지자체 장의 재무회계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실무자급 이상의 차상위 의사결정 관련자들에 대한 회계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 4.3 공인회계사에 대한 교육

Frey and Osborne(2017)은 회계·세무분야의 약 70% 이상이 20년 내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되어 사라질 직군으로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예측하였다[17]. 하지만, 회계사의 역할을 단순한 증빙 확인 등 전통적인 회계감사 관점에서 바라본 것으로, AI 등이 대체할 수 없는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라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직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공인회계사들의 활동무대는 감사 등 전통적인 업무영역을 넘어서, 종합적인 경영진단과 중장기적인 경영전략 수립은 물론, 국제조세 자문 등 국제적인 활동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블록체인'으로 인해 회계감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래의 진위확인 업무가 불필요해졌다. Alarcon and Ng(2018)은 블록체인 회계환경하에서 회계전문가들은 변화된 환경을 읽고 이를 분석해냄은 물론, 내부통제 및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내는 Smart Contract Designer로서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으며[18], 이정미(2018)는 미래 지향적인 통섭형 회계전문가 양성을 위한 회계교육으로 전공지식과 분석적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등 융복합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19].

더구나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전산감사 관련 과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현장에서 '전산 감사'를 제대로 할 줄 아는 회계사가 거의 없어, 전산 감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위와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살펴 보건데, 감사인인 공인회계사는 물론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대 기업들의 감사 및 감사위원, 내부관리회계를 담당하는 책임자 및 기업 회계실무 담당자 등 비감사인 회계전문인력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체계적인 전문교육기관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 5. 회계 전문교육기관 설치에 대하여

### 5.1 회계 전문교육기관 설치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자유수입제도하의 왜곡된 외부감사 시장과 회계에 대한 만연된 불신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을 막고 부실회계와 관련된 천문학적인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 회계교육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적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기업들이 각자 독자적인 시설에서 교수진을 보유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교육프로그램은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물론 각 업종(은행, 증권, 보험, 비영리단체 등)별로 통일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도 시설 및 운영비 등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우 효율적인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과거 사법연수원과 중국의 국가회계학원의 교육시스템을 예로 들어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인 (가칭)'회계연수원'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 5.2 사법연수원 교육

우리나라의 사법시험제도 하에서 사법연수생들은 2년 동안 사법연수원과 현장 실무수습을 거친 후 판·감사로

임용되거나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았다. 처음 1학기와 2학기 중에는 민사, 형사, 검찰 및 변호사 실무를 포함한 법률 실무과목과 일반법, 전문 및 특별법과 외국법 등 법률 이론과목과 판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2학기 후반부터 3~4학기에 걸쳐 2주의 전문분야 실무수습과 법원, 검찰, 변호사 각 직역을 거쳐 모두 6개월간의 실무수습은 물론,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과 삼성그룹 등 유수 대기업을 비롯한 각 전문분야에 걸쳐 현장근무를 통해 해당 전문분야의 현황을 이해하도록 하였다[20].

이와 같이 사법연수원에서는 매우 폭넓고 밀도 높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연수생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적 실무능력과 직업적 윤리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5.3 중국의 국가회계학원

중국은 외자기업 적극 유치정책에 따라,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범국가 차원으로 기업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인회계사들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001년부터 북경(BNAI) 그리고 상해(SNAI), 하문(XNAI) 등 3곳에 국가회계학원이 문을 열었다. 이 학원들은 우리나라의 사법연수원과 유사한 곳으로 회계사와 기업체 CFO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비용을 받고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3만여명의 회계사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30만명 이상을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중국 경제의 국제화와 급격한 신장세에 발맞추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국가회계학원을 설치하여 세계적인 교수진 확보와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CPA와 회계 담당자(CEO 포함)들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 재정경제부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21].

### 5.4 회계연수원 교육 대상과 당위성

본 연구의 (가칭)'회계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 1)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자들에 대한 실무수습 연수교육.
- 2) 기업 회계사들의 재교육 및 경력단절 또는 휴업 중인 회계사들의 현장 복귀시 필요한 교육.
- 3) 정부 등 공적 기관과 사기업의 회계담당자, 내부회계제도 관련자 등 비감사인 회계전문인력들에 대한 실무교육.

- 4) 정부와 지자체의 장은 물론 공공기관 책임자 및 기업 CEO(CFO와 감사, 감사위원 포함) 들에 대한 회계의 중요성 고취 및 인식 전환을 위한 윤리교육 등.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수습회계사들에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들로부터 통일되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여 제대로 된 회계전문가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더구나 경력 단절이나 휴업 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 업무를 다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회계환경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는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기에, 이들을 위해서도 전문 교육기관은 꼭 필요하다.

두 번째로, IFRS 체제하에서 기업의 회계처리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어 기업의 회계담당자 및 내부회계관리자와 기타 비감사 회계전문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들이 회계를 제대로 알아야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지 않게 될 것이며, 때로는 재무분석가들의 판단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실무교육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 등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관리자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회계교육은 국가기관의 명실상부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정착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우리나라의 오톤 경영자(CEO)들이 기업의 회계 정보보다 자신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여 의사결정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회계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후진적인 경영 마인드를 지니고 있는데, 이들 CEO와 관리자 등의 경영 마인드를 전환시키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 5.5 회계연수원 교육내용

회계연수원에서는 감사인과 비감사인을 대상으로 회계와 감사분야에 대한 전문가적인 실무교육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공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최고의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영어 등 외국어로 운영시 국제적인 교육훈련기관으로도 외연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앞 4장 '미래의 회계교육'에서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빅 데이터와 블록체인 시대의 회계교육과정으로서 사례중심 전공역

량, 분석적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 역량과 정보통신기술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융복합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5.6 회계연수원 설립주체 및 운영방안

### 5.6.1 민간 영역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

시장에서 공공재의 성격으로 한국거래소, 경총, 상공회의소, 전국은행(증권, 보험 등)연합회, 한공회, 중소기업중앙회, 금융감독원 등 각종 유관기관들을 단체 회원 또는 등록법인으로 등재시켜 이들 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아 사회적 공공재 성격의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주로 민간 영역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회계법인과 기업, 그리고 교육희망자 또는 훈련받은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 방안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이기에 설립이 수월하며, 현실적으로 '한공회'내의 '회계연수원'을 독립시켜 확대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민간영역에서 시행하는 것이기에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복식부기 회계교육부문, 그리고 기업의 CEO와 관리자급을 끌어들이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5.6.2 공적 영역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안

회계정보는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은 물론 채권자인 은행과 거래처 및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회계를 '공공성' 차원에서 보면 회계교육을 민간 영역에서만 담당하여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주기적인 지정감사제도를 도입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회계감사의 '공공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기존의 사법연수원 교육시스템처럼 1년 이상의 집합교육을 통해 사례중심의 이론적 무장과 pooling시스템을 통한 현장 실무수습, 그리고 중국의 국가회계학원 운영 등과 같은 시스템을 원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 방안의 장점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의 복식부기 정부회계까지 고려한 경우로서 공(公)과 사(私)를 막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운영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교육을 통하여 지자체 장과 CEO들의 회계와 감사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서 국가 신인도 제고에 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의 운영주체로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현실적으로는 앞 4장에서 살펴본 기존의 '회계기준원(KAI)' 조직을 확대하고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해 운영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다만, 시설확보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기에, '한공회'와 회계학회 등 각종 유관 학회 그리고 기타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화와 정부를 전방위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시설투자 이후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수익구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회계법인과 기업, 각종 단체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등이 개별적인 자체 연수를 진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적으로 오히려 교육예산이 절약되고, 더구나 각 분야별 최고의 현장중심 전문가로 교수진을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집합교육을 통해 교육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5.6.3 회계연수원 교수자와 운영 프로그램

회계연수원의 교수자는 우리나라 사법연수원과 중국의 국가회계학원처럼 국내외 석학을 초빙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 전문가를 선정하여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육 프로그램도 이들 기관을 벤치마킹하되,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CEO 및 회계 책임자, 업종별 기업의 실무 담당자, 내부통제 관련자, 공인회계사 재교육 및 경력단절 공인회계사 재교육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편성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본다.

## 6. 결론

### 6.1 결론 요약 및 기대효과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결여로 인해 국가신인도가 최하위에 머무르게 된 핵심원인은 왜곡된 외부감사인 자유선임제도와 부족한 회계교육에 있다고 본다. 이에 정부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라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즉,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주기적 지정감사제, 표준감사 시간제 등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법률개정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감사인 독립성과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은 물론 회계 관련자들의 실무적인 업무능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의 회계교육이 독립된 회계학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하고, 회계학자들도 실무와는 거리가 있는 이론 중심의 실증연구보다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도 회계투명성이 높은 외국의 우수 사례처럼 회계전공자들만이 응시하도록 하고 시험문제도 직업윤리와 실무중심문제 유형으로 변화되었으면 한다.

지금과 같이 대학에서 제대로 된 회계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공적·사적 영역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수많은 비감사인 집단들이 원칙중심의 IFRS에 따른 회계실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실무중심의 대규모 회계전문교육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등 공적 영역과 회계법인, 기업 등 사적 영역 모두에게 필요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현장 중심 실무(수습)교육을 시키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인 (가칭)'회계연수원' 설립을 제언하는 바이다.

회계연수원 교육을 통해 외부감사인과 기업들의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실무적용의 효과성을 높여서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국가 신인도는 제고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의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으로 합리적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달성함은 물론, 집합교육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교육비 절감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이 저조한 이유를 회계교육관점에서 살펴본 것으로, 현재적인 문제점 파악을 각종 선행연구나 공청회, 보도자료 등에 근거하였기에 제언에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실제적인 자료나 직접적인 설문작업 등을 통해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 REFERENCES

- [1] I. M. Song, G. J. Lee, D. J. Jeong & H. J. Nam. (2010). A Study on the Entry of the Top 10 Accounting Credits. KICPA, 1-125.

- [2] Jacob Soll. (2014). *The Reckoning: Financial Accountability and the Rise and Fall of Nations*. Memento Publishing co.
- [3] S. N. Na & Y. S. Jeon. (2007). *Public Economics*, Pakyungsa. 22-26.
- [4] S. Y. Yoon. (2018). Case Study of the Effects of Liberal Accounting for Financial Liter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6), 45-51.
- [5] K. S. Bae, J. Y. Kim, J. H. Kim, W. K. Lee, S. Y. Ryu & S. H. Moon. (2017). Strategies to Strengthen Accounting Education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Korean Accounting Journal*, 26(2), 179-207.
- [6] W. Y. Choi & J. S. Kim. (2017). On Comprehensive Measures for Improving accounting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A Public Hearing*.
- [7] S. R. Yang. (2019. 06. 23.). 98% of the audit opinion is nonsense. *The Seoul Economic Daily*.
- [8] H. H. Kim. (2016. September). Cost Calculation and Util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Academic Discussion on the Application of Cost Accounting Information*.
- [9] <http://www.kicpa.or.kr>
- [10] I. K. Joo, S. Y. Kwon, L. S. Hwang & T. S. Shim. (2006). International Education Standards and Their Implications for Accounting Education and CPA Certification in Korea. *Korean Accounting Journal*, 15(3), 135-163.
- [11] <http://www.kasb.or.kr>.
- [12] T. K. Lee. (2005). Eligibility Criterion in Hong Kong. *KICPA Monthly Journal*, 87-92.
- [13] G. R. Lee. (2013). A Study on Improving Transparency in Accounting for Sustainable Growth of Korean Companies.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12), 257-264.
- [14] K. S. Bae, J. Y. Kim, J. H. Kim, W. K. Lee, S. Y. Ryu & S. H. Moon. (2017). Strategies to Strengthen Accounting Education Competitiveness of Universities. *Korean Accounting Journal*, 26(2), 179-207.
- [15] J. P. Jeun, B. H. Lee & W. Y. Yun.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ccounting Learning Program for the Basic Education of Accounting. *Korean Accounting Journal*, 27(5), 237-259.
- [16] K. M. Kim & H. S. Kim. (2017). A Study on Customized Software Education method using Flipped Learning in the Digital Ag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55-64.
- [17] C. B. Frey & M. A. Osborne. (2017).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zation?*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14, 254-280.
- [18] J. L. Alarcon & C. Ng. (2018). Block Chain and the Future of accounting. *Pennsylvania CPA Journal*, 3-7.
- [19] J. M. Lee. (2018). Accounting Education Needed in the Era of Big Data and Block Chain. *Korean Accounting Journal*, 27(4), 1-30.
- [20] <https://jrta.scourt.go.kr/>
- [21] China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2017. November 30). *THE NINTH ANNUAL AOSSG MEETING*.

## 이 계 원(Kye-Won Lee)

[장학원]



- 1981년 2월 : 조선대학교 경영학사
- 1993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1985년 9월 ~ 현재 :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재무(세무)회계, 회계윤리와 교육, 기업재무

· E-Mail : gwlee@chosun.ac.kr

## 한 경 희(Kyoung-Hee Han)

[장학원]



- 2010년 2월 : 조선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04년 3월 ~ 현재 :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초빙객원교수 및 강사
- 관심분야 : 기업윤리, 기업재무, 재무회계
- E-Mail : hanko73@hanmail.net